

속초시민을 위한 감성 토크 콘서트, 김창옥 초청 강연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병선)은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45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속초시민을 위한 감성 토크콘서트 김창옥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소통과 공감의 전문가 김창옥 강사가 초청된다. 김창옥 강사는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이자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방송 출연과 저서를 통해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도 속초시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연 주제는 '사람의 마음에서 도시의 희망을 보다. 개인의 마음과 도시의 미래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관계와 소통, 자존감, 감정언어 등을 통해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현실적 스트레스를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하는 일이 결국 도시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행사 안내와 인사말씀 이후 김창옥 강사의 초청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며, 속초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예약자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예약은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예약시스템과 전화(010-2047-025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인 2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약자는 행사 당일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예약 확인 후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골프과학기술대, 강원RISE

사업 성과공유 및 GH-Lab 개소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18일, 대학 내에서 '2025년 강원RISE사업 및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와 'GH-Lab(지애이치랩) 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강원 RISE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구축한 지역 혁신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원도 RISE 센터장을 비롯해 황성근 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등 관계 부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 RISE 사업의 일환인 '고령친화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허브 구축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GH-Lab 센터'개소식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GH-Lab 센터는 슬림 트레이너 등 전문 운동 장비를 갖추고 체형 교정 및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건강 플랫폼'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한 황성근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들어 온 혁신 성과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4.4조 집행·국비 10조 7천억 원 확보 추진

상반기 70%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제시 규모보다 상향 설정

2027년도 국비확보 10조 7천억 원 공격적 설정, 사회간접자본(SOC)·미래산업 등 중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월 19일(목) 오후 3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신속집행 및 국비확보 통합 전략회의」(이하 '통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하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해 실국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과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점검하고,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이번 통합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로 상반기 4조 4,267억 원 규모의 신속집행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목표액 4조 4,267억 원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조 9,874억 원(대상액의 63%) 보다 4,393억 원(7%)을 상향한 규모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국별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3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전년 확보액(10조 2,600억 원) 보다 4.3% 증액된 국비 10조 7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미래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벤처·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연계 기업 맞춤형 투자 역량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2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운용사의 1차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발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벤처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투자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진단 ▲기술평가 및 기업가치 평가 ▲IR 디자인 고도화 ▲IR 코칭 ▲투자자 매칭 등으로 구성된다.

김민석 기자

강릉시,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착공식

강릉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강원형 공공주택)의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해 20일(금) 오후 2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강릉시 통합공공임대주택(강원형 공공주택)은 지역 내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입암동 498번지 일원 기존 E급 재난위험시설이었던 대복금 강연리를 철거한 자리에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6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815㎡, 지하 1층/지상 10층, 8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지역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청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기반을 닦는 동안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2026년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 접수

(재)평창관광문화재단은 3월 6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 및 개인을 모집한다.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총 3종으로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이다.

「예술활동 활성화사업」은 평창군 관내의 전문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 분야와 개인, 단체 구분에 따라 200~500만 원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전문 공연 예술 단체가 평창군내의 문화소외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

체당 200~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은 평창

군 관내의 아마추어동아리 및 생활예술 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생활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단체별 200~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모집은 (재)평창관광문화재단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우송하면 된다. 각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 등은 해당 공고문과 '2026년 (재)평창관광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창관광문화재단 누리집(www.ptc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평창관광문화재단 문화사업팀(033-336-9358)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불법건축 사전 차단·인허가 미확인 공사 주의 당부

동해시 목호동 일대 창업이 급증하면서, 불법·위법 건축행위 우려



동해시가 목호지역 일대 창업 증가에 따라 불법·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허가 준수 안내와 함께 과거 단속 사례를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목호 일대에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골목상권과 항만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카페·음식점·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예비 창업자는

물론 동해시 시민들까지 기존 공실 상가를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 후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에서는 건축물 용도·구조·면적 등 인허가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 변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일부 점포는 영업장 확장을 위

해 벽체를 철거하거나 바닥·층고를 변경하고, 외부 차양시설과 증축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자진철거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공사를 완료하고도 영업을 허가 받지 못하거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동해시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 인테리어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을 변경하는 공사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며, "사전 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창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과거 목호권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목호시장부터 발한삼거리,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44개 상가·점포를 점검해 불법 차양시설과 증·개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화천 산간 계곡 불법 시설 집중 단속

화천군 TF팀, 무단점용, 평상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 정비

화천군이 지역 내 청정 산간계곡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맞춰 추진한다.

이는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이달 초부터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역 내 하천 계곡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화천군 관내 하천, 계곡, 세천, 구기 등이 모두 해당된다.

군은 이미 휴가철 행락객이 즐겨 찾는 80여곳에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또 이달 말까지 꼼꼼한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과 계곡에 불법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철제 구조물 등의 실태를

확인한다. 이어 내달부터 불법 점용시설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관련자에게는 구두 통보 없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통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단속 건의 조치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군은 만일 원상복구 기간인 15일이 지났음에도 불법 시설물이 남아있는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법에 따른 고발, 행정 대집행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된다. 화천군은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불법 점용시설 2차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과천시, 2025 민원서비스평가 최고 등급 '가등급'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평가

가
최고 등급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과천

40th ANNIVERSARY
I Am 과천
We Are 과천